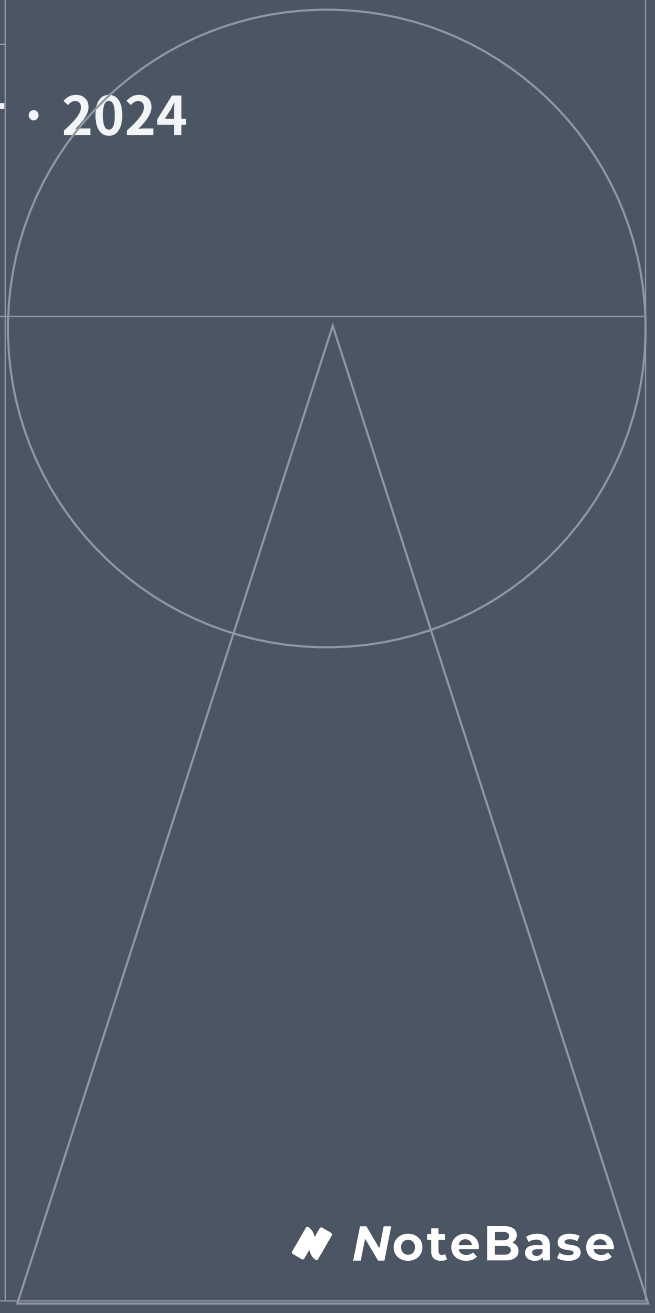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7급 · 회계학 · 2024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7급 · 회계학 · 2024

공무원/서울시/7급 · 회계학 · 2024

문 1. <보기>에서 무형자산의 합계(총액)는?

<보기>
• 컴퓨터 소프트웨어 ₩1,000,000
• 종업원교육비 ₩300,000
• 저작권 ₩500,000
• 특허권등록비 ₩600,000
•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 ₩800,000

① ₩1,500,000
② ₩1,800,000
③ ₩2,100,000
④ ₩2,900,000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무형자산의 인식 대상과 비용 처리 대상을 구분한 뒤 무형자산에 해당하는 금액만 합산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컴퓨터 소프트웨어 1,000,000원, 종업원교육비 300,000원, 저작권 500,000원, 특허권등록비 600,000원,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 800,000원이다.
구해야 할 값: 재무상태표에 무형자산으로 인식되는 금액의 합계이다.
주의할 조건: 종업원교육비는 비용이며,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사용할 공식

무형자산 합계 = 무형자산으로 인식되는 항목의 취득원가 합계이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 이 문항은 모든 금액을 더하는 문제가 아니라, 무형자산의 인식 요건을 충족하는 항목만 골라 합산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컴퓨터 소프트웨어 1,000,000원은 식별 가능한 비화폐성 자산이므로 무형자산에 해당한다.
2. 저작권 500,000원과 특허권등록비 600,000원도 권리 취득과 직접 관련된 무형자산이므로 포함한다.
3. 종업원교육비 300,000원은 미래 효익이 있더라도 별도 식별 가능한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비용 처리한다.
4.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 800,000원은 신뢰성 있게 분리 측정할 수 없어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5. 따라서 합계는 1,000,000원 + 500,000원 + 600,000원 = 2,100,000원이다.

선지 판단

1번 X: 1,500,000원은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저작권만 더한 값이다. 틀린 표현은 특허권등록비를 제외한 점이다. 올바르게는 특허권등록비도 특허권 취득과 직접 관련된 무형자산이므로 포함해야 한다.
2번 X: 1,800,000원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종업원교육비, 저작권을 더한 값으로 볼 수 있다. 틀린 표현은 종업원교육비를 무형자산에 넣은 점이다. 올바르게는 종업원교육비는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고 무형자산 합계에서 제외한다.
3번 O: 컴퓨터 소프트웨어 1,000,000원, 저작권 500,000원, 특허권등록비 600,000원만 포함하면 2,100,000원이다. 무형자산 인식 대상과 비용 처리 대상을 정확히 구분한 값이다.
4번 X: 2,900,000원은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 800,000원을 잘못 포함한 값이다. 틀린 표현은 내부 창출 영업권을 무형자산으로 본 점이다. 올바르게는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인식하지 않으므로 제외해야 한다.

오답 포인트

종업원교육비는 장래 효익이 있어 보여 자산처럼 보이지만 회계상 별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점이 함정이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도 기업가치와 관련 있어 보여 포함하기 쉽지만, 신뢰성 있는 측정과 식별 가능성 문제 때문에 인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주 낚인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무형자산 합계 문제는 항목을 보자마자 식별 가능 권리인지, 취득원가가 직접 대응되는지, 내부 창출 항목이나 교육·훈련비 같은 기간비용인지를 먼저 구분한 뒤 포함 대상만 더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소프트웨어·저작권·특허권은 포함하고, 교육비와 내부 창출 영업권은 제외한다.

NoteBase

문 2. <보기>는 ㈜서울의 12월 중 매출거래 내역이다. ㈜서울은 계속기록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내부관리목적상 매출 환입 및 에누리계정과 매출할인계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다. ㈜서울의 12월 중 순매출액은?

<보기>
• 12월 1일 ㈜대한에게 5/10, n/30의 신용조건으로 상품 ₩100,000을 외상으로 판매하였다.
• 12월 8일, 12월 1일 판매한 상품 중 ₩10,000이 품질 하자 등의 이유로 ㈜대한으로부터 반송되었다.
• 12월 9일 ㈜대한으로부터 외상판매 대금을 전부 회수하였다.

① ₩82,500
② ₩85,500
③ ₩88,500
④ ₩90,500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총액법에서 총매출액, 매출환입 및 에누리, 매출할인을 반영하여 순매출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12월 1일 외상매출 100,000원, 신용조건은 5/10, n/30이다.
반품: 12월 8일 품질하자로 10,000원이 반품되었다.
회수: 12월 9일 전액 회수되어 할인기간 10일 이내이므로 매출할인이 적용된다.
주의할 조건: 총액법이므로 매출 시점에는 100,000원을 전액 매출로 기록하고, 할인은 회수 시점에 별도 매출할인으로 인식한다.

사용할 공식

순매출액은 총매출액에서 매출환입 및 에누리와 매출할인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순매출액 = 총매출액 - 매출환입 및 에누리 - 매출할인
이 공식을 쓰는 이유: 이 문항은 총액법과 매출환입 및 에누리계정, 매출할인계정을 모두 사용한다고 주어졌으므로 세 항목의 차감 구조로 순매출액을 계산해야 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12월 1일 총매출액은 100,000원이다.
2. 12월 8일 반품 10,000원을 차감하면 할인 적용 대상 외상매출금은 90,000원이다.
3. 12월 9일은 12월 1일 판매분의 할인기간 10일 이내이므로 매출할인은 90,000원 × 5% = 4,500원이다.
4. 따라서 순매출액은 $100,000 - 10,000 - 4,500 = 85,500$이다.

선지 판단

1번 X: 82,500원은 계산 결과와 다르다. 총액법에서는 100,000원에서 반품 10,000원과 할인 4,500원을 차감한 85,500원이 순매출액이다. 올바르게는 85,500원이다.
2번 O: 반품 후 잔액 90,000원에 5% 할인을 적용하면 4,500원이고, 순매출액은 100,000원 - 10,000원 - 4,500원 = 85,500원이다. 따라서 옳은 선택지는 2번이다.
3번 X: 88,500원은 반품 후 잔액 90,000원에 대한 할인 4,500원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금액이다. 올바르게는 85,500원이다.
4번 X: 90,500원은 반품과 할인 차감을 끝까지 반영하지 못한 금액이다. 올바르게는 85,500원이다.

오답 포인트

매출할인을 원래 매출액 100,000원 기준으로 보거나, 반품 후 외상매출금 90,000원을 그대로 순매출액으로 착각하면 틀리기 쉽다. 할인은 반품 후 남은 외상매출금 90,000원에 대해 5%를 적용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총액법 계산형 문제는 총매출액을 먼저 잡고, 반품·에누리로 할인기초를 줄인 뒤, 회수일이 할인기간 안이면 남은 채권에 할인율을 적용하여 마지막에 순매출액을 계산하는 순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총액법 순매출액 = 총매출액 - 매출환입 및 에누리 - 매출할인이며, 할인기초는 반품 후 잔액이다.

NoteBase

문 3. (주)서울은 20X1년 1월 1일에 ₩100,000을 지급하고 구기계를 신기계로 교체하였다. 교체 과정에서 구기계의 폐기손실 ₩1,000, 신기계의 운임 및 설치비 ₩10,000, 신기계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종업원의 교육훈련비 ₩1,000이 소요되었다. 또한 신기계의 정상가동 전에 시운전비 ₩5,000이 발생하였으며, 해당 시운전하는 과정에서 순매각금액 ₩10,000의 시제품이 생산되었다. 동 기계의 취득원가는?

① ₩102,000

② ₩112,000

③ ₩115,000

④ ₩116,000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유형자산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직접 관련 원가와 제외되는 항목, 그리고 시운전 산출물 판매대금의 처리 여부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구입대금 100,000원, 구기계 폐기손실 1,000원, 운반 및 설치비 10,000원, 교육훈련비 1,000원, 시운전비 5,000원, 시운전 중 생산품 판매금액 10,000원이다.
구해야 할 값: 신기계의 취득원가이다.
주의할 조건: 폐기손실과 교육훈련비는 취득원가가 아니며, 시운전 중 생산품 판매대금은 자산원가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사용할 공식

취득원가 = 구입가격 + 자산을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직접 관련 원가
이 문제에서는 운반 및 설치비와 시운전비가 직접 관련 원가에 해당한다. 구기계 폐기손실은 새 기계 취득과 직접 관련된 원가가 아니고, 종업원 교육훈련비도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운전 중 생산된 제품의 판매대금은 별도 손익으로 처리하므로 기계원가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계산 과정

1. 구입대금 100,000원을 출발점으로 잡는다.
2. 직접 관련 원가인 운반 및 설치비 10,000원을 가산한다.
3. 직접 관련 원가인 시운전비 5,000원을 가산한다.
4. 구기계 폐기손실 1,000원과 교육훈련비 1,000원은 제외한다.
5. 시운전 중 생산품 판매금액 10,000원은 자산원가 차감항목이 아니므로 반영하지 않는다.
6. 따라서 취득원가는 100,000원 + 10,000원 + 5,000원 = 115,000원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1번 X: 102,000원은 직접 관련 원가인 운반 및 설치비 10,000원과 시운전비 5,000원을 반영하지 못한 값이다. 폐기손실 1,000원과 교육훈련비 1,000원은 취득원가가 아니므로 더할 수 없다. 올바르게는 115,000원이다.
2번 X: 112,000원은 취득원가에 포함될 항목과 제외될 항목을 혼동한 값이다. 교육훈련비와 구기계 폐기손실은 제외하고, 시운전비는 포함해야 한다. 올바르게는 115,000원이다.
3번 O: 취득원가는 구입대금 100,000원, 운반 및 설치비 10,000원, 시운전비 5,000원을 합한 115,000원이다. 시운전 산출물 판매대금 10,000원은 자산원가 차감항목이 아니다.
4번 X: 116,000원은 정답 115,000원에 구기계 폐기손실 1,000원을 잘못 더한 값에 가깝다. 구기계 폐기손실은 새 기계를 취득원가로 인식하는 데 필요한 원가가 아니다. 올바르게는 115,000원이다.

오답 포인트

시운전 중 생산품 판매대금을 여전히 취득원가 차감항목으로 보는 실수가 자주 나온다. 또한 구기계 처분손익이나 종업원 교육훈련비처럼 새 자산을 의도한 상태로 만드는 데 직접 관련되지 않은 항목을 원가에 넣으면 틀린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유형자산 취득원가는 구입가격에서 시작해 자산을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직접 관련 원가만 더하면 된다. 교육훈련비, 구자산 처분손익, 정상가동 전후의 운영손익은 분리하고, 시운전 중 생산품 판매는 자산원가 차감이 아니라 별도 손익으로 본다.

암기 포인트

취득원가는 사용 가능 상태까지의 직접원가만 포함하고, 교육훈련비와 구자산 처분손익은 제외하며, 시운전 판매수익은 차감하지 않는다.

NoteBase

문 4. (주)서울은 20X1년 1월 1일에 <보기>와 같은 조건의 금융리스계약을 (주)대한과 체결하여 기계장치를 리스하였다. 20X2년 1월 1일 리스실행일에 리스이용자인 (주)서울의 사용권자산의 최초측정액은?

<보기>
• 리스기간: 10년
• 리스이용자는 리스제공자에게 리스약정일에 첫 달 리스료 ₩1,000을 지급하였다.
• 리스제공자는 리스이용자에게 리스약정일에 리스인센티브 ₩2,000을 현금 지급하였다.
• 리스이용자는 리스제공자에게 리스실행일에 리스개설직접원가 ₩500을 현금 지급하였다.
• 리스이용자는 내재이자율을 이용해서 리스부채를 ₩60,000으로 최초 측정하였다.

① ₩57,500
② ₩59,000
③ ₩59,500
④ ₩61,500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리스이용자의 사용권자산 최초측정액을 구할 때 리스부채, 선급 리스료, 리스인센티브, 리스개설직접원가의 가감 방향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리스부채 최초측정액 60,000원, 리스약정일에 지급한 첫 달 리스료 1,000원, 리스약정일에 받은 리스인센티브 2,000원, 리스실행일에 지급한 리스개설직접원가 500원이다.
구해야 할 값: 리스실행일의 사용권자산 최초측정액이다.
주의할 조건: 받은 리스인센티브는 차감하고, 리스실행일 전이나 그날까지 지급한 리스료와 리스개설직접원가는 가산한다. 리스기간 10년은 이 금액 계산에 직접 쓰이지 않는다.

사용할 공식

$ROU = LL + P - I + IDC$
여기서 ROU는 사용권자산 최초측정액, LL은 리스부채 최초측정액, P는 리스실행일 전이나 그날까지 지급한 리스료, I는 받은 리스인센티브, IDC는 리스개설직접원가이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리스이용자의 사용권자산을 리스부채에서 시작하여 선급 성격의 지급액과 직접원가는 더하고, 리스제공자로부터 받은 인센티브는 차감하는 구조로 최초 측정하기 때문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리스부채 최초측정액은 60,000원이다.
2. 리스약정일에 지급한 첫 달 리스료 1,000원은 리스실행일 전 지급한 리스료이므로 더한다.
3. 리스약정일에 받은 리스인센티브 2,000원은 사용권자산에서 차감한다.
4. 리스실행일에 지급한 리스개설직접원가 500원은 사용권자산에 더한다.
5. $60,000 + 1,000 - 2,000 + 500 = 59,500$
따라서 사용권자산의 최초측정액은 59,500원이다.

선지 판단

1번 X: 계산 결과는 59,500원이므로 57,500원은 맞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최초측정액을 57,500원으로 본 부분이다. 올바르게는 59,500원이다.
57,500원은 리스약정일에 지급한 첫 달 리스료 1,000원을 더하지 않고 오히려 차감한 경우에 가까운 오답이다.

2번 X: 59,000원은 리스개설직접원가 500원을 누락한 값이므로 틀리다.
틀린 표현은 최초측정액을 59,000원으로 본 부분이다. 올바르게는 리스개설직접원가까지 포함한 59,500원이다.

3번 O: 리스부채 60,000원에 선급 리스료 1,000원과 리스개설직접원가 500원을 더하고, 받은 리스인센티브 2,000원을 차감하면 59,500원이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다.

4번 X: 61,500원은 리스료와 리스인센티브의 부호를 반대로 처리한 오답이다.
틀린 표현은 최초측정액을 61,500원으로 본 부분이다. 올바르게는 지급한 리스료는 더하고 받은 인센티브는 빼서 59,500원으로 계산한다.

오답 포인트

이 문항의 함정은 리스이용자 기준의 가감 방향을 뒤섞는 데 있다. 지급한 리스료와 리스개설직접원가는 더하고, 받은 리스인센티브는 뺀다. 특히 리스부채 60,000원은 이미 별도로 최초측정된 값이므로 여기에 기간 10년을 다시 반영하거나, 인센티브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손대면 틀린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리스이용자 사용권자산 최초측정 문제는 먼저 리스부채 금액을 출발점으로 잡고, 그다음에 지급한 리스료와 리스개설직접원가는 가산, 받은 리스인센티브는 차감하는 순서로 판단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사용권자산 최초측정액은 리스부채 + 선급 리스료 + 리스개설직접원가 - 리스인센티브이다.

NoteBase

문 5. (주)서울의 20X1년 12월 31일 재고자산 장부수량은 500개, 실제재고수량은 480개이며, 재고자산 단위당 순실현가능 가치는 ₩1,000, 취득단가는 ₩1,200이다. (주)서울의 20X1년 재고자산 매입액은 ₩1,000,000이며, 기초 재고자산은 ₩100,000이다. 재고자산 감모 중 40%는 정상적인 감모이며, 정상적인 감모손실과 재고자산평가손실이 모두 매출원가에 포함되는 경우 20X1년 12월 31일 (주)서울의 매출원가는? (단, (주)서울은 재고자산을 실지재고조사법으로 기록하고 있다.)

① ₩605,600

② ₩620,000

③ ₩624,400

④ ₩634,200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실제재고조사법에서 정상감모와 비정상감모를 구분하고, 순실현가능가치 평가까지 반영하여 매출원가를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장부수량 500개, 실제재고수량 480개, 취득단가 1,200원, 단위당 순실현가능가치 1,000원, 기초재고자산 100,000원, 당기 매입액 1,000,000원이다.
구해야 할 값: 20X1년 12월 31일 매출원가이다.
주의할 조건: 감모 20개 중 40%인 8개는 정상감모이고 60%인 12개는 비정상감모이다. 정상감모와 재고자산평가손실은 매출원가에 포함되지만 비정상감모는 매출원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용할 공식

매출원가 = 기초재고자산 + 당기매입액 - 기말재고자산 - 비정상감모손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 실제재고조사법에서는 기말재고를 실사수량으로 평가하여 차감한다. 이때 정상감모와 재고자산평가손실은 매출원가에 포함되므로 별도 차감하지 않고, 비정상감모만 별도손실로 처리하므로 매출원가 계산에서 제외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감모수량은 500개 - 480개 = 20개이다. 이 중 정상감모는 20개 × 40% = 8개, 비정상감모는 12개이다.
2. 비정상감모손실은 12개 × 1,200원 = 14,400원이다.
3. 비정상감모를 제외한 재고의 원가는 500개 × 1,200원 - 14,400원 = 585,600원이다. 이는 정상감모 8개의 원가가 남은 정상재고 480개에 흡수된 금액이다.
4. 단위당 순실현가능가치 1,000원이 취득단가보다 낮으므로 기말재고자산은 480개 × 1,000원 = 480,000원이다. 따라서 재고자산평가손실은 585,600원 - 480,000원 = 105,600원이며 매출원가에 포함된다.
5. 매출원가는 100,000원 + 1,000,000원 - 480,000원 - 14,400원 = 605,600원이다.

선지 판단

1번 O: 계산 결과 매출원가는 605,600원이다. 정상감모 8개의 원가와 재고자산평가손실 105,600원은 매출원가에 포함되고, 비정상감모손실 14,400원만 별도로 제외하므로 맞는 값이다.
2번 X: 620,000원은 비정상감모손실 14,400원을 매출원가에서 빼지 않고 모두 매출원가에 넣은 값이다. 틀린 값 620,000원 → 올바르게는 605,600원이다.
3번 X: 624,400원은 기말재고 480,000원이나 비정상감모손실 14,400원 중 하나를 잘못 반영한 값이다. 이 문제에서 두 금액은 각각 확정되므로 나올 수 없다. 틀린 값 624,400원 → 올바르게는 605,600원이다.
4번 X: 634,200원은 정상감모, 비정상감모, 평가손실의 포함 범위를 혼동하여 손실을 중복 반영한 값이다. 비정상감모는 매출원가가 아니라 별도손실이다. 틀린 값 634,200원 → 올바르게는 605,600원이다.

오답 포인트

실제재고조사법이라고 해서 감모 전체를 매출원가에 넣는 것으로 처리하면 틀린다. 이 문제의 함정은 정상감모는 매출원가에 포함되지만 비정상감모는 별도손실이라는 점과, 기말재고는 실사수량 480개를 순실현가능가치 1,000원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점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재고자산 계산형은 감모수량을 먼저 정상감모와 비정상감모로 나눈 뒤, 비정상감모를 별도손실로 떼어 내고, 남은 실사수량에 대해 저가법을 적용한 다음, 실제재고조사법의 매출원가 식에 대입하는 순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실제재고조사법에서는 정상감모와 평가손실은 매출원가, 비정상감모는 별도손실이라는 구분이 핵심이다.

NoteBase

문 6. (주)서울의 재무정보는 <보기>와 같다. (주)서울이 목표 이익에 도달하기 위한 최소 제품 판매량은?

<보기>
• 단위당 판매가격 ₩800
• 단위당 변동원가 ₩500
• 고정원가 ₩60,000
• 목표이익 ₩40,000

① 327단위
② 328단위
③ 331단위
④ 334단위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원가·조업도·이익분석에서 단위당 공헌이익을 구한 뒤 목표이익을 달성하는 최소 판매량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단위당 판매가격 800원, 단위당 변동원가 500원, 고정원가 60,000원, 목표이익 40,000원
구해야 할 값: 목표이익 40,000원을 달성하는 최소 판매량
주의할 조건: 손익분기점 판매량이 아니라 목표이익 판매량이므로 고정원가에 목표이익을 더해 필요한 총공헌이익을 구해야 한다.

사용할 공식

공식: 목표판매량 = (고정원가 + 목표이익) / 단위당 공헌이익
단위당 공헌이익은 판매가격 - 단위당 변동원가이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 목표이익을 달성하려면 총공헌이익이 고정원가와 목표이익의 합을 충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1. 단위당 공헌이익을 구하면 800원 - 500원 = 300원이다.
2. 필요한 총공헌이익은 60,000원 + 40,000원 = 100,000원이다.
3. 목표판매량은 $(60,000 + 40,000)/(800 - 500) = 100,000/300 = 333.33\ldots$단위이다.
4. 최소 판매량은 목표이익 이상을 처음 만족해야 하므로 올림하여 334단위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1번: X. 327단위를 팔면 총공헌이익은 98,100원이고 영업이익은 38,100원이므로 목표이익 40,000원에 1,900원 미달한다. 틀린 표현은 "327단위"이고, 올바르게는 "334단위"이다.
2번: X. 328단위를 팔면 총공헌이익은 98,400원이고 영업이익은 38,400원이므로 목표이익에 1,600원 미달한다. 틀린 표현은 "328단위"이고, 올바르게는 "334단위"이다.
3번: X. 331단위를 팔면 총공헌이익은 99,300원이고 영업이익은 39,300원이므로 목표이익에 700원 미달한다. 틀린 표현은 "331단위"이고, 올바르게는 "334단위"이다.
4번: O. 334단위를 팔면 총공헌이익은 100,200원이고 영업이익은 40,200원이므로 목표이익 40,000원을 처음 충족한다. 따라서 최소 판매량은 334단위이다.
계산 결과 334단위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오답 포인트

이 문항의 함정은 손익분기점 판매량과 목표이익 판매량을 혼동하는 점과 333.33…단위를 333단위로 버리는 점이다. 최소 판매량은 목표치 이상을 처음 만족하는 정수여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원가·조업도·이익 계산형은 단위당 공헌이익 계산, 필요한 총공헌이익 계산, 나눗셈 결과의 올림 여부 확인 순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목표이익 판매량은 (고정원가 + 목표이익) / 단위당 공헌이익이고, 계산 결과가 소수이면 최소 판매량은 올림이다.

NoteBase

문 7. 법인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결합에서 발생한 영업권의 장부금액이 세무기준액보다 작을 경우에 그 차이로 이연법인세부채가 발생한다.

② 과세대상수익의 수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다른 경우에는 일시적차이가 소멸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세율을 사용하여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를 측정한다.

③ 매 보고기간 말에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하여 재검토한다.

④ 미사용 세액공제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이월된 미사용 세액공제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일시적차이의 방향에 따라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어떻게 구분하고, 미인식 자산의 재검토와 평균세율 측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과세할 일시적차이는 자산의 장부금액이 세무기준액보다 크거나 부채의 장부금액이 세무기준액보다 작아 미래 과세소득을 늘리는 차이로서 이연법인세부채의 원인이 된다.
차감할 일시적차이는 자산의 장부금액이 세무기준액보다 작거나 부채의 장부금액이 세무기준액보다 커 미래 과세소득을 줄이는 차이로서 인식 요건을 충족하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원인이 된다.
누진세율처럼 과세소득 수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면 일시적차이가 소멸되는 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세율로 이연법인세를 측정한다.

선지별 해설

1번: X. 자산인 영업권의 장부금액이 세무기준액보다 작으면 미래에 손금산입 효과가 생기는 차감할 일시적차이이다. 틀린 표현은 "이연법인세부채가 발생한다"이다. 올바르게는 "차감할 일시적차이이므로 인식 요건을 충족하면 이연법인세자산을 검토한다"이다.
2번: O. 과세대상수익의 수준에 따라 적용세율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일시적차이가 소멸될 기간의 과세소득 또는 세무상결손금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세율로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를 측정한다.
3번: O. 매 보고기간 말에는 아직 인식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을 다시 검토하여, 미래 과세소득 발생가능성이 높아졌다면 그 범위에서 추가 인식을 검토한다.
4번: O. 이월된 미사용 세액공제는 이를 사용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범위 안에서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1번은 "장부금액이 세무기준액보다 작다"는 문구를 보고도 자산인지 부채인지, 그리고 그 차이가 미래 과세소득을 늘리는지 줄이는지를 따지지 않으면 쉽게 속는다. 이 문항의 함정은 영업권이라는 단어보다 일시적차이의 방향과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연결을 뒤바꾼 데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해당 항목이 자산인지 부채인지 구분한 다음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크기를 비교한다. 그 차이가 미래 과세소득을 늘리면 이연법인세부채, 줄이면 인식 요건을 전제로 이연법인세자산이라고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자산은 장부금액>세무기준액이면 부채, 장부금액<세무기준액이면 자산 방향으로 연결된다.

NoteBase

문 8. (주)서울의 회계담당자가 20X1년도 장부 마감 도중에 병원에 입원하였다. 현재까지 진행된 마감 현황을 살펴본 결과 모든 수익계정과 비용계정의 잔액은 ₩0이었고, 집합손익계정의 대변합계는 ₩90,800, 차변합계는 ₩45,500으로 나타났다. 이익잉여금계정 차변에는 중간배당(현금) ₩6,000이 기록되어 있으며, 이를 반영한 이익잉여금의 잔액은 ₩52,000으로 표시되어 있다. (주)서울의 20X1년 기초 자본금이 ₩120,000일 때, 장부 마감 후 20X1년도 기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자본총계는? (단, (주)서울의 자본은 자본금과 이익잉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X1년 중 상기 중간배당 외에 자본거래는 없다고 가정한다.)

① ₩76,700

② ₩172,000

③ ₩196,700

④ ₩217,300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집합손익계정에서 당기순이익을 구한 뒤, 이미 중간배당이 반영된 이익잉여금 현재잔액에 그 순이익만 가산하여 기말 자본총계를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집합손익계정 대변합계 90,800원, 차변합계 45,500원, 이익잉여금 현재잔액 52,000원, 자본금 120,000원이다.
구해야 할 값: 장부 마감 후 20X1년 말 재무상태표의 자본총계이다.
주의할 조건: 이익잉여금 52,000원은 중간배당 6,000원이 이미 반영된 현재잔액이므로 배당을 다시 차감하지 않는다.

사용할 공식

기말 자본총계 = 자본금 + 기말 이익잉여금
기말 이익잉여금 = 현재 이익잉여금 잔액 + 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 = 집합손익계정 대변합계 - 집합손익계정 차변합계
이 공식을 쓰는 이유: 수익과 비용 계정은 이미 집합손익계정으로 대체되었고, 남은 마감절차는 집합손익계정의 순이익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는 단계이기 때문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집합손익계정의 순이익은 90,800원 - 45,500원 = 45,300원이다.
2. 이익잉여금 현재잔액 52,000원은 중간배당 6,000원이 이미 반영된 금액이므로, 마감 시에는 순이익 45,300원만 더한다.
3. 기말 이익잉여금은 52,000원 + 45,300원 = 97,300원이다.
4. 기말 자본총계는 자본금 120,000원 + 이익잉여금 97,300원 = 217,300원이다.

선지 판단

1번 X: 76,700원은 계산 결과와 다르다. 자본총계는 자본금과 기말 이익잉여금을 합한 217,300원이다. 틀린 값 → 올바르게는 217,300원이다.
2번 X: 172,000원은 이익잉여금 52,000원에 자본금 120,000원만 단순 합산하여 집합손익계정의 순이익 45,300원을 누락할 때 나오는 값이다. 틀린 값 → 올바르게는 순이익을 반영한 217,300원이다.
3번 X: 196,700원은 중간배당 6,000원을 현재 이익잉여금 52,000원에서 다시 한 번 차감하는 식의 중복 반영 오류에서 벗어나지 못한 값이다. 틀린 값 → 올바르게는 배당을 다시 차감하지 않은 217,300원이다.
4번 O: 집합손익계정의 순이익 45,300원을 현재 이익잉여금 52,000원에 가산하면 기말 이익잉여금은 97,300원이고, 여기에 자본금 120,000원을 더하면 자본총계는 217,300원이다.

오답 포인트

이익잉여금 52,000원을 기초이익잉여금으로 오해하거나, 문제에 별도로 적힌 중간배당 6,000원을 다시 차감하면 오답이 된다. 현재 잔액인지 기초 잔액인지 먼저 구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마감 문제는 현재 어디까지 마감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한 뒤, 아직 반영되지 않은 항목만 추가 반영하는 순서로 판단한다. 집합손익계정에 남아 있으면 순이익을 계산해 이익잉여금에 넘기고, 이미 이익잉여금에 반영된 배당은 다시 손대지 않는다.

암기 포인트

현재 이익잉여금 잔액은 그대로 출발점이 되고, 집합손익계정의 순이익만 추가로 마감한다.

NoteBase

문 9. (주)서울은 20X1년 말 3개의 사업부 중 지속적인 손실이 예상되는 사업부 A를 매각하기로 결정하였다. 20X1년도 사업부 A를 포함한 (주)서울 전체의 수익 · 비용과 매각이 결정된 사업부 A의 수익 · 비용 발생금액은 <보기>와 같다. 사업부 A의 자산은 모두 비유동자산이며, 해당 자산의 매각예정 분류 직전 장부금액은 ₩3,000, 순공정가치는 ₩2,000이다. 20X1년 말 현재 사업부 A는 중단영업 분류기준을 충족하며, <보기>에 표시된 사업부 A의 비용에 매각예정비유동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법인세비용을 회계이익의 25%로 가정할 때, (주)서울이 20X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할 중단영업손실은?

<보기>

구분	㈜서울 전체	사업부 A
수익	₩50,000	₩8,000
비용	₩28,000	₩10,000
법인세차감전순이익	₩22,000	
법인세비용	₩5,500	
당기순이익	₩16,500	

① ₩1,500

② ₩2,000

③ ₩2,250

④ ₩2,750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중단영업손실에 포함되는 항목을 구분하여 사업부 A의 영업손실과 매각예정비유동자산 손상차손을 모두 세후 금액으로 계산하는 문제이다.

NoteBase

조건 정리

주어진 값은 사업부 A의 수익 8,000, 비용 10,000, 매각예정 분류 직전 장부금액 3,000, 순공정가치 2,000, 법인세율 25%이다.
구해야 할 값은 20X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할 중단영업손실이다.
주의할 조건은 표의 사업부 A 비용 10,000에 매각예정비유동자산 손상차손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과, 중단영업손실은 세후 금액으로 표시한다는 점이다.

사용할 공식

중단영업손실 = 사업부 A의 영업손실 + 매각예정비유동자산 손상차손이다.
세후 중단영업손실 = 세전 중단영업손실 $\times$ $1 - 0.25$이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중단영업은 처분집단의 영업성과와 처분 또는 재측정손익을 함께, 그리고 세후 금액으로 표시하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1. 사업부 A의 세전 영업손실은 8,000 - 10,000 = -2,000이다.
2. 매각예정비유동자산 손상차손은 3,000 - 2,000 = 1,000이다.
3. 세전 중단영업손실은 2,000 + 1,000 = 3,000이다.
4. 세후 중단영업손실은 3,000 $\times$ 75% = 2,250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1,500은 사업부 A의 영업손실 2,000에 대해서만 세후 조정한 값이다. 틀린 표현은 손상차손 1,000을 누락한 계산이라는 점이다. 올바르게는 세후 영업손실 1,500에 세후 손상차손 750을 더한 2,250이다.
② X: 2,000은 사업부 A의 세전 영업손실만 본 값이다. 틀린 표현은 세후 표시 원칙과 손상차손 반영을 모두 빠뜨린 계산이라는 점이다. 올바르게는 영업손실과 손상차손을 합산한 뒤 세후 금액 2,250으로 표시한다.
③ O: 사업부 A의 영업손실 2,000과 손상차손 1,000을 합치면 세전 중단영업손실은 3,000이다. 여기에 법인세효과 25%를 반영하면 세후 중단영업손실은 2,250이므로 맞다.
④ X: 2,750은 세전 손실 3,000에서 법인세효과를 일부만 반영한 값이다. 틀린 표현은 전체 중단영업손실에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올바르게는 3,000 전체에 25%를 적용하여 750을 차감한 2,250이다.

오답 포인트

표의 비용 10,000에 손상차손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문장을 놓치면 ①이나 ②로 흐르기 쉽다. 또 중단영업은 세후 표시 항목이라는 점을 빼먹으면 세전 수치 3,000이나 부분 세후 수치 2,750 같은 오답에 걸리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중단영업 문제는 먼저 해당 사업부의 영업손익을 따로 구하고, 다음으로 처분 관련 손익이나 손상차손 포함 여부를 확인한 뒤, 마지막에 합산한 금액을 세후로 바꾸는 순서로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중단영업손익은 사업부 영업손익 + 처분·재측정손익을 합쳐 세후로 표시하는 항목이다.

NoteBase

문 10. (주)서울의 회계담당자는 20X2년도의 장부를 마감하기 전에 <보기>와 같은 오류사항을 발견하였으며, 이는 모두 중요한 오류에 해당한다. <보기>의 오류사항에 대한 수정 효과가 (주)서울의 20X2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보기>
• (주)서울은 실지재고조사법을 적용하면서 선적지 인도조건으로 매입한 상품에 대해 매입을 인식하였지만, 매기 말 현재 운송 중인 상품을 기말재고자산에서 누락하였다. 이로 인해 20X0년 말의 재고자산이 ₩100,000 과소계상되었으며, 20X1년 말의 재고자산도 ₩150,000 과소계상되었다. 과소계상된 재고자산은 그 다음 연도에 모두 판매되었고, 관련 매출은 모두 기록되었다.
• 20X1년 초 (주)서울은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는 기계장치 A에 대해서 ₩40,000의 지출을 하였다. 동 지출은 기계장치 A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여 인식 및 감가상각하여야 하나, (주)서울은 이를 지출 시점에 즉시 비용(수선비)으로 처리하였다. 20X2년 말 현재 동 기계장치 A의 잔존내용연수는 2년이고, 잔존가치는 없다.
(주)서울은 모든 유형자산에 대하여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① ₩10,000 증가
② ₩50,000 감소
③ ₩160,000 감소
④ ₩170,000 감소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전기오류 수정이 당기손익에 미치는 효과를 재고자산 오류의 회전효과와 자본적 지출의 감가상각 효과로 나누어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20X0년 말 재고자산 100,000 과소계상, 20X1년 말 재고자산 150,000 과소계상, 20X1년 초 기계장치 관련 지출 40,000을 비용 처리함.
구해야 할 값: 오류 수정이 20X2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순효과.
주의할 조건: 재고 오류는 20X1년 말 오류가 20X2년 초 재고로 이어져 당기손익에 영향을 주고, 유형자산 오류는 20X2년에 인식되어야 할 감가상각비만 당기손익에 반영된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재고 오류의 당기손익 효과는 기초재고 오류가 매출원가에 미치는 효과로 본다. 기초재고 과소계상은 매출원가 과소계상, 당기순이익 과대계상이 된다.
자본적 지출 오류의 당기손익 효과는 당기에 추가로 인식해야 할 감가상각비로 본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 이 문항은 전기오류를 20X2년에 수정할 때 현재 연도 손익에 남아 있는 부분만 따로 계산해야 하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1. 재고 오류를 본다. 20X1년 말 재고자산 150,000 과소계상은 20X2년 초 재고자산 150,000 과소계상으로 이어진다. 기초재고가 150,000 과소계상이면 20X2년 매출원가도 150,000 과소계상되고, 그만큼 20X2년 당기순이익은 150,000 과대계상된다. 따라서 수정하면 20X2년 당기순이익은 150,000 감소한다.
2. 20X0년 말 재고자산 100,000 과소계상은 20X1년 손익에 반영되어 이미 회전되었으므로 20X2년 당기손익에는 직접 영향이 없다.
3. 기계장치 관련 40,000은 20X1년 초에 자본화했어야 한다. 20X2년 말 현재 잔존내용연수가 2년이므로 20X1년 초 시점의 총 남은 내용연수는 4년이다. 따라서 연간 감가상각비는 10,000이다. 회사는 이를 비용 처리하여 20X2년에 감가상각비를 전혀 인식하지 않았으므로, 수정 시 20X2년 당기순이익은 10,000 감소한다.
4. 합계는 150,000 감소 + 10,000 감소 = 160,000 감소이다.

선지 판단

1번: X. 10,000 증가는 방향부터 틀렸다. 20X1년 말 재고자산 과소계상 150,000은 20X2년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시키므로 수정 시 감소가 된다. 올바르게는 20X2년 당기순이익이 160,000 감소한다.
2번: X. 50,000 감소는 20X0년 말 100,000과 20X1년 말 150,000의 차이만 보거나 재고 오류의 회전효과를 잘못 잡은 값이다. 20X2년 손익에는 20X1년 말 재고 오류 150,000과 20X2년 감가상각비 10,000이 반영되어야 한다. 올바르게는 160,000 감소이다.
3번: O. 재고 오류 수정으로 150,000 감소, 자본적 지출 오류 수정으로 10,000 감소이므로 총 160,000 감소가 맞다.
4번: X. 170,000 감소는 기계장치 지출 40,000의 감가상각비를 20,000으로 잘못 계산할 때 나오기 쉽다. 문제는 20X2년 말 현재 잔존내용연수가 2년이라는 뜻이므로 20X1년 초부터의 총 남은 내용연수는 4년이고, 연간 감가상각비는 10,000이다. 올바르게는 160,000 감소이다.

오답 포인트

재고 오류에서 20X0년 말 100,000과 20X1년 말 150,000을 단순 합산하거나 차감하면 틀린다. 당기손익에는 바로 전기 말 재고 오류가 기초재고로 이어지는 효과만 남는다. 또한 잔존내용연수 2년을 지출 시점의 전체 내용연수로 오해하면 감가상각비를 20,000으로 잘못 계산하게 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전기오류 수정 문제는 먼저 어떤 오류가 당기손익까지 회전되어 들어왔는지를 확인하고, 그다음 자산·부채 오류 중 당기에 추가 인식할 수익이나 비용이 무엇인지를 따로 계산하면 된다. 재고 오류는 기초재고 효과를, 유형자산 오류는 당기 감가상각비 효과를 본다.

암기 포인트

기말재고 과소계상은 다음 연도 기초재고 과소계상으로 이어져 다음 연도 이익을 과대계상한다.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면 이후 연도에는 감가상각비 누락만큼 이익이 과대계상된다.

문 11. (주)서울은 20X1년 초에 건물관리 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을 고객과 체결하였다.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고객은 매년 말에 건물관리 용역의 개별 판매가격에 해당하는 ₩900,000을 후급하기로 하였다. 이후 20X2년 초에 고객은 계약기간을 4년 추가하고 그 기간(20X3년부터 20X6년까지)동안에는 매년 ₩800,000을 지급한다는 계약변경을 요구하였으며, (주)서울은 추가된 기간에 대한 용역 대가가 개별 판매가격을 반영하지 않는 금액이지만 매년 초에 선급하는 조건으로 계약변경에 합의하였다. (주)서울이 20X3년에 인식할 수익 금액은? (단, 계약변경일 이후에 제공할 용역은 이미 제공한 용역과 구별된다고 간주하며, 현재가치평가는 고려하지 않는다.)

① ₩800,000

② ₩820,000

③ ₩920,000

④ ₩1,100,000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개별판매가격을 반영하지 않는 계약변경이 발생했을 때, 잔여 독립 용역 전체에 거래가격을 재배분하여 연도별 수익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최초 계약은 2년, 매년 말 900,000원 후급이다. 20X2년 초 계약변경으로 4년이 추가되고 20X3년부터 20X6년까지는 매년 초 800,000원 선급이다.
구해야 할 값: 20X3년에 인식할 수익 금액이다.
주의할 조건: 계약변경일 이후 제공할 용역은 이미 제공한 용역과 구별되고, 현재가치평가는 고려하지 않는다.

사용할 공식

계약변경 후 잔여 수행의무의 거래가격 = 기존 계약의 미인식 대가 + 계약변경으로 추가된 대가이다. 이 거래가격을 잔여 독립 용역들의 개별판매가격 비율로 배분한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 추가된 4년의 가격 800,000원은 개별판매가격을 반영하지 않으므로 별도 계약이 아니다. 다만 계약변경일 이후의 용역은 모두 구별되므로, 20X2년부터 20X6년까지 남은 5개 연도 용역에 총대가를 전진적으로 다시 배분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계약변경 시점인 20X2년 초에 남아 있는 용역은 20X2년 1년과 추가된 20X3년부터 20X6년까지 4년을 합한 5년이다.
2. 잔여 총대가는 기존 계약의 미인식 대가 900,000원 + 추가 대가 800,000원 × 4년 = 4,100,000원이다.
3. 현재가치평가를 고려하지 않으므로 각 연도 용역의 개별판매가격은 모두 900,000원으로 본다. 따라서 잔여 개별판매가격 총액은 900,000원 × 5년 = 4,500,000원이다.
4. 각 연도에 배분되는 수익은 4,100,000원 × 900,000원 / 4,500,000원 = 820,000원이다.
5. 따라서 20X3년에 인식할 수익은 820,000원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800,000원은 20X3년에 실제로 선급받는 금액만 그대로 수익으로 본 값이다. 이 문항은 현금수취액이 아니라 계약변경 후 재배분된 거래가격으로 수익을 인식한다. 틀린 금액 → 올바른 금액은 820,000원이다.
② O: 계약변경 시점에 남은 5개 연도 용역에 총대가 4,100,000원을 개별판매가격 비율로 배분하면 연도별 수익은 820,000원이다. 20X3년 수익도 이 금액이므로 옳다.
③ X: 920,000원은 연도별 개별판매가격 900,000원보다도 큰 금액이다. 이 계약변경은 총대가 4,100,000원이 총 개별판매가격 4,500,000원보다 낮으므로 연도별 배분액은 9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틀린 금액 → 올바른 금액은 820,000원이다.
④ X: 1,100,000원은 잔여 총대가를 잘못 묶거나 일부 대가를 중복 반영한 값이다. 총대가가 할인된 계약인데 한 해 수익이 1,100,000원까지 커질 수는 없다. 틀린 금액 → 올바른 금액은 820,000원이다.

오답 포인트

계약변경 후의 현금수취 시점과 수익인식 금액을 같은 것으로 보는 실수가 가장 흔하다. 이 문항은 20X3년에 800,000원을 선급받더라도, 수익은 계약변경 시점에 남은 수행의무 전체에 재배분한 금액 820,000원으로 본다는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계약변경 문제는 먼저 추가 재화·용역의 가격이 개별판매가격을 반영하는지 확인하고, 반영하지 않으면 계약변경 시점에 남아 있는 독립 수행의무 수와 총대가를 다시 묶어 배분한다. 그다음 현금수취액이 아니라 재배분된 연도별 배분액으로 각 기간 수익을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구별되는 잔여 용역 + 개별판매가격 미반영 계약변경이면 남은 대가를 남은 용역 전체에 다시 배분한다.

NoteBase

문 1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상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준 1 투입변수는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활성시장의 (조정하지 않은) 공시가격이다.

② 자산을 보유하고자 하는 기업의 의도나 부채를 결제 혹은 이행하고자 하는 기업의 의도는 공정가치 측정에 관련이 없다.

③ 공정가치 서열체계는 공정가치 측정 및 관련 공시에서 일관성과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한다.

④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에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입하면서 지급하거나 부채를 차입하면서 수취하게 될 가격인 유입가격으로 정의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공정가치의 정의가 유출가격인지 유입가격인지, 그리고 수준 1 투입변수와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핵심 문구를 정확히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받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인 유출가격이다. 수준 1 투입변수는 측정일에 기업이 접근할 수 있는 활성시장의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조정하지 않은 공시가격이다. 공정가치 서열체계는 투입변수의 관측가능성에 따라 공정가치 측정과 관련 공시의 일관성과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수준 1 투입변수는 측정일에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에서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조정하지 않은 공시가격을 뜻하므로 옳다.

② O
공정가치는 시장참여자 관점의 시장기준 측정치이므로 자산을 계속 보유하려는 기업의 의도나 부채를 결제·이행하려는 기업의 의도는 측정에 직접적인 기준이 되지 않는다.

③ O
공정가치 서열체계는 수준 1, 2, 3으로 투입변수를 구분하여 공정가치 측정과 관련 공시의 일관성과 비교가능성을 높이려는 장치이므로 옳다.

④ X
틀린 부분은 '자산을 매입하면서 지급하거나 부채를 차입하면서 수취하게 될 가격인 유입가격'이다. 공정가치는 유입가격이 아니라 유출가격이며, 올바르게는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받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이다.

오답 포인트

④는 매입·차입이라는 유입가격 표현을 넣어 공정가치와 취득원가 개념을 뒤섞은 함정이다. 공정가치는 무엇을 사는 가격이 아니라 무엇을 팔거나 이전하는 가격인지를 먼저 구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공정가치 문항은 먼저 유출가격인지 유입가격인지부터 확인하고, 다음으로 수준 1은 '동일한 항목 + 활성시장 + 조정하지 않은 공시가격'이라는 세 요소가 모두 있는지를 보면 된다.

암기 포인트

공정가치 = 매도·이전 기준의 유출가격, 수준 1 = 동일항목 활성시장 무조정 공시가격이다.

NoteBase

문 13. (주)서울은 20X1년 초 회사채(액면금액 ₩10,000, 표시이자율 5%, 이자는 매년 말 후급, 만기 20X3년 말)를 ₩8,800에 구입하고, 상각후원가측정(AC)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20X1년 이자수익이 ₩880일 때, 20X2년과 20X3년에 인식할 이자수익의 합은? (단, (주)서울은 20X3년 말까지 회사채를 보유하고 있다.)

① ₩1,820

② ₩1,830

③ ₩1,840

④ ₩1,850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할인발행된 회사채를 상각후원가로 보유할 때 전체 보유기간의 총 이자수익과 이미 인식한 이자수익을 연결해 남은 기간의 이자수익 합계를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은 액면금액 10,000원, 표시이자율 5%, 매년 말 이자 500원, 취득원가 8,800원, 만기 시 원금 10,000원, 20X1년 이자수익 880원이다.
구해야 할 값은 20X2년과 20X3년에 인식할 이자수익의 합이다.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이므로 취득할인액 1,200원은 보유기간 전체에 걸쳐 이자수익으로 추가 인식된다.

사용할 공식

총 이자수익은 총현금유입에서 취득원가를 차감해 구한다.
총 이자수익 = (500 + 500 + 10,500) - 8,800 = 2,700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상각후원가측정 채권의 전체 이자수익이 쿠폰이자 1,500원과 할인차금 상각 1,200원의 합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1. 만기까지 받는 총현금유입은 첫해 이자 500원, 둘째 해 이자 500원, 만기 현금 10,500원을 합한 11,500원이다.
2. 총 이자수익은 11,500원 - 8,800원 = 2,700원이다.
3. 이 중 20X1년에 이미 인식한 이자수익이 880원이므로 나머지 20X2년과 20X3년의 합은 2,700원 - 880원 = 1,820원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계산 결과 남은 2개 연도의 이자수익 합계는 1,820원이다. 전체 총이자수익 2,700원에서 20X1년 880원을 차감하면 바로 확인된다.
② X: 틀린 표현은 합계를 1,830원으로 본 점이다. 올바르게는 2,700원 - 880원 = 1,820원이다.
③ X: 틀린 표현은 합계를 1,840원으로 본 점이다. 올바르게는 취득할인액 전체 1,200원이 쿠폰이자 1,500원에 더해져 총 2,700원이 되므로 남은 기간 합계는 1,820원이다.
④ X: 틀린 표현은 합계를 1,850원으로 본 점이다. 올바르게는 남은 기간 이자수익 합계가 1,820원이며, 1,850원으로 계산하면 전체 보유기간 이자수익이 2,730원으로 불일치하게 된다.

오답 포인트

쿠폰이자만 더하거나, 매년의 이자수익을 개별적으로 억지로 추정하다가 총액 일치를 놓치기 쉽다. 이 문항은 연도별 세부 유효이자율표보다 전체 현금흐름과 취득할인액의 총합을 먼저 보는 것이 함정 회피에 유리하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는 계산형 문항에서 여러 연도의 이자수익 합을 묻는다면 먼저 총현금유입 - 취득원가로 전체 이자수익을 구하고, 이미 인식한 연도분을 차감하는 순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상각후원가 채권의 총이자수익은 쿠폰이자 합계 + 할인차금 상각액 합계이며, 이는 총현금유입 - 취득원가와 같다.

NoteBase

문 14. 20X1년 1월 1일에 (주)서울은 (주)대한의 유통보통주식 200주(지분율: 40%)를 주당 ₩500에 취득함으로써 (주)대한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6월 30일에 (주)대한은 ₩4,000의 현금배당을 선언하고 지급하였고, 12월 31일에 20X1년도의 당기순이익으로 ₩10,000을 보고하였다. 20X1년 12월 31일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은?

① ₩98,400

② ₩102,400

③ ₩104,000

④ ₩105,600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지분법 적용 시 관계기업투자주식의 기말 장부금액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취득주식수는 200주, 취득단가는 주당 500원이므로 취득원가는 100,000원이다. 지분율은 40%이다.
피투자회사의 현금배당은 4,000원이고 당기순이익은 10,000원이다.

사용할 공식

기말 장부금액 = 취득원가 + 피투자회사 당기순이익 지분 - 수취배당금 지분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계기업투자는 지분법을 적용하므로, 피투자회사의 이익은 장부금액을 증가시키고 배당금 수취는 투자회수로 보아 장부금액을 감소시킨다.

계산 과정

1. 취득원가 = 200주 × 500원 = 100,000원이다.
2. 지분법이익 = 10,000원 × 40% = 4,000원이다.
3. 수취배당금 차감액 = 4,000원 × 40% = 1,600원이다.
4. 기말 장부금액 = 100,000원 + 4,000원 - 1,600원 = 102,400원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98,400원은 취득원가 100,000원에서 배당금 지분 1,600원만 차감하고 지분법이익 4,000원을 반영하지 않은 값이다. 틀린 표현은 당기순이익 지분의 누락이며, 올바르게는 순이익 지분을 더한 뒤 배당금 지분을 차감하여 102,400원이 된다.
② O: 지분법이익 4,000원을 가산하고 배당금 지분 1,600원을 차감하면 102,400원이 된다. 계산 결과와 일치하므로 옳다.
③ X: 104,000원은 취득원가에 지분법이익 4,000원만 더하고 배당금 지분 1,600원을 차감하지 않은 값이다. 틀린 표현은 배당을 수익처럼 본 점이며, 올바르게는 배당금은 투자장부금액 감소로 처리한다.
④ X: 105,600원은 지분법이익 4,000원에 더해 배당금 지분 1,600원까지 가산한 값이다. 틀린 표현은 배당금의 부호 처리이며, 올바르게는 배당금 지분 1,600원을 가산이 아니라 차감해야 한다.

오답 포인트

지분법에서는 피투자회사의 순이익은 투자계정 증가, 배당금은 투자계정 감소라는 방향을 혼동하기 쉽다. 특히 배당금을 현금수익으로 보고 더하는 실수가 자주 나온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관계기업투자주식 문제가 나오면 먼저 취득원가를 잡고, 그다음 피투자회사의 순이익 지분은 더하고 배당금 지분은 뺀 뒤 최종 장부금액을 계산한다.

암기 포인트

지분법은 이익은 더하고 배당은 뺀다.

NoteBase

문 15. <보기>는 ㈜서울의 기계 취득과 관련된 자료이다. 20X1년도 기계의 감가상각비는?

<보기>
• 20X1년 1월 1일, ₩1,000에 취득하였는데, 정부보조금 ₩300을 받았다.
• 정부보조금에 대해 비용 차감 방식(순액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한다.
• 기계의 내용연수는 5년이며, 추정 잔존가치는 ₩0,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

① ₩0
② ₩140
③ ₩200
④ ₩560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정부보조금을 비용 차감 방식(순액법)으로 처리할 때 정액법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취득원가 1,000원, 정부보조금 300원,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원, 정액법이다.
구해야 할 값: 20X1년도 감가상각비이다.
주의할 조건: 순액법이므로 정부보조금을 자산 취득원가에서 먼저 차감한 뒤 감가상각한다. 또한 20X1년 1월 1일 취득이므로 1년치 감가상각을 전액 인식한다.

사용할 공식

감가상각대상금액 = 취득원가 - 정부보조금 - 잔존가치이다.
연간 감가상각비 = 감가상각대상금액 ÷ 내용연수이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순액법에서는 정부보조금을 자산원가에서 차감한 순액을 기준으로 정액법 감가상각을 계산하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순액법상 자산원가 = 1,000 - 300 = 700
연간 감가상각비 = (700 - 0)/(5) = 140
따라서 20X1년도 감가상각비는 140원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1번 X: 0원은 감가상각을 전혀 인식하지 않은 값이다. 틀린 표현은 감가상각대상금액이 없다고 본 점이며, 올바르게는 순액법 적용 후에도 700원을 5년에 걸쳐 상각하므로 연간 감가상각비는 140원이다.
2번 O: 순액법으로 정부보조금 300원을 차감한 후 자산원가 700원을 정액법으로 5년 상각하므로 140원이 맞다.
3번 X: 200원은 정부보조금을 차감하지 않고 1,000원을 그대로 5년으로 나눈 값이다. 틀린 표현은 보조금 차감을 누락한 점이며, 올바르게는 1,000원에서 300원을 차감한 7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므로 140원이다.
4번 X: 560원은 1년 감가상각 후의 장부금액 700 - 140에 해당한다. 틀린 표현은 감가상각비와 기말 장부금액을 혼동한 점이며, 올바르게는 감가상각비는 140원이고 560원은 연말 장부가액이다.

오답 포인트

순액법에서는 정부보조금을 자산원가에서 차감한다는 점을 놓치면 3번 200원이 쉽게 나온다. 또 계산된 감가상각비 140원과 감가상각 후 장부가액 560원을 구분하지 못하면 4번에 걸리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정부보조금 관련 감가상각 문제는 회계처리 방식이 순액법인지 이연수익법인지 먼저 확인하고, 순액법이면 취득원가에서 보조금을 차감한 뒤 내용연수로 나누어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다. 마지막에는 계산 결과가 비용인지 장부가액인지 항목명을 다시 대조한다.

암기 포인트

순액법은 보조금을 먼저 빼고 감가상각한다는 점이 핵심이며, 감가상각비와 기말 장부가액은 서로 다른 금액이다.

NoteBase

문 16. (주)서울은 20X1년 공장건설을 위하여 (주)대한과 ₩600,000에 건설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사기간은 20X1년 4월 1일부터 20X1년 12월 31일까지이며, 해당 적격자산의 연평균 순지출액은 ₩200,000이다. (주)서울은 공장건설에 사용할 목적으로 20X1년 1월 1일 만기 1년, 이자율 10%로 ₩100,000을 차입하였으며, 해당 차입금 중 ₩20,000을 공사기간 중 3개월 만기 환매채에 투자하였다. 해당 환매채의 수익률은 연 10%이다. 일반차입금과 관련된 자본화이자율은 8%이며, 20X1년 중 일반차입금을 통해 발생된 이자비용은 ₩6,000이다. 20X1년 (주)서울이 해당 공장건설과 관련하여 자본화할 총 차입원가는? (단,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은 월할로 계산한다.)

① ₩10,300

② ₩13,000

③ ₩14,500

④ ₩17,400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특정차입금의 자본화이자에서 일시운용수익을 차감하고, 일반차입금은 자본화이자율과 실제 발생이자 한도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은 연평균 순지출액 200,000원, 특정차입금 100,000원, 이자율 10%, 공사기간 9개월, 일시투자금 20,000원, 투자기간 3개월, 일반차입금 자본화이자율 8%, 일반차입금 실제 이자비용 6,000원이다.
구해야 할 값은 20X1년에 자본화할 총 차입원가이다.
주의할 조건은 특정차입금은 공사기간 9개월분 이자만 자본화하고, 일시운용수익은 차감하며, 일반차입금은 실제 발생이자 6,000원을 초과하여 자본화할 수 없다는 점이다.

사용할 공식

총 자본화 차입원가는 (특정차입금 이자 - 일시운용수익) + \(연평균 순지출액 - 특정차입금) × 자본화이자율, 일반차입금 실제이자\로 계산한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특정차입금은 해당 자산에 직접 대응되는 실제 차입원가에서 임시 투자수익을 차감하여 계산하고, 초과 지출분만 일반차입금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특정차입금 자본화 가능액은 $100,000 \times 10\% \times \frac{9}{12} - 20,000 \times 10\% \times \frac{3}{12} = 7,500 - 500 = 7,000$ 이다.
2. 일반차입금 적용 대상 연평균 순지출액은 200,000원 - 100,000원 = 100,000원이다.
3. 일반차입금 기준 계산액은 $100,000 \times 8\% = 8,000$이지만, 실제 일반차입금 이자비용이 6,000원이므로 자본화 가능액은 6,000원이다.
4. 따라서 총 자본화 차입원가는 $7,000 + 6,000 = 13,000$원이다.

선지 판단

1번 X: 총 자본화 차입원가는 특정차입금 7,000원과 일반차입금 6,000원을 합한 13,000원이므로 10,300원은 계산 결과와 맞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13,000원이다.
2번 O: 특정차입금 자본화액 7,000원과 일반차입금 자본화액 6,000원을 합하면 13,000원이므로 옳다.
3번 X: 14,500원은 일반차입금 실제 이자비용 6,000원 한도를 넘기거나 특정차입금 이자를 기간 안분 없이 계산한 오류가 반영된 수치이다. 올바르게는 13,000원이다.
4번 X: 17,400원은 특정차입금과 일반차입금을 모두 과대계상한 수치이다. 특정차입금은 일시운용수익 500원을 차감해야 하고 일반차입금은 실제 이자비용 6,000원을 넘길 수 없으므로 올바르게는 13,000원이다.

오답 포인트

연평균 순지출액 200,000원은 이미 평균화된 지출액이므로 일반차입금 부분에서 다시 9개월을 곱해 이중으로 기간 조정하면 틀린다. 또한 일반차입금 계산액이 8,000원으로 나오더라도 실제 발생이자 6,000원이 한도라는 점과, 특정차입금의 일시운용수익 500원을 반드시 차감해야 한다는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차입원가 자본화 문제는 먼저 특정차입금과 일반차입금을 분리하고, 특정차입금은 공사기간 이자에서 일시운용수익을 차감한 뒤, 초과 지출분에 일반차입금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고 마지막에 실제 발생이자 한도를 대조하는 순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특정차입금은 실제이자 - 일시운용수익, 일반차입금은 초과지출 × 자본화이자율과 실제이자 중 작은 금액이다.

NoteBase

문 17. ㈜서울은 확정급여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20X1년 1월 1일 확정급여채무는 ₩100,000, 사외적립자산은 ₩80,000이다. ㈜서울이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를 측정할 때 사용한 할인율은 10%이며, 20X1년 당기근무원가는 ₩20,000이다. 20X1년 7월 1일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 ₩30,000이 사외적립자산에서 지급되었으며, 20X1년 9월 1일 사외적립자산에 추가적으로 ₩30,000이 적립되었다. 20X1년 12월 31일 순확정급여부채는? (단,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은 월할로 계산한다.)

① ₩11,000

② ₩13,000

③ ₩15,000

④ ₩17,000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확정급여채무와 사외적립자산을 각각 월할 이자로 롤포워드한 뒤 기말 순확정급여부채를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기초 확정급여채무는 ₩100,000이다.
기초 사외적립자산은 ₩80,000이다.
할인율은 연 10%이며 이자비용과 이자수익은 월할 계산이다.
당기근무원가는 ₩20,000이다.
20X1년 7월 1일 퇴직금 ₩30,000이 사외적립자산에서 지급되어 확정급여채무와 사외적립자산이 함께 감소한다.
20X1년 9월 1일 사외적립자산에 ₩30,000이 추가 적립된다.

사용할 공식

기말 순확정급여부채 = 기말 확정급여채무 - 기말 사외적립자산
기말 확정급여채무 = 기초 확정급여채무 + 당기근무원가 + 이자비용 - 급여지급액
기말 사외적립자산 = 기초 사외적립자산 + 이자수익 - 급여지급액 + 추가적립액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문제에서 확정급여채무와 사외적립자산의 기초금액, 할인율, 중간 급여지급, 중간 추가적립이 모두 주어져 있어 두 금액을 각각 변동시킨 뒤 마지막에 순액을 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확정급여채무의 이자비용은 7월 1일 지급된 퇴직금 ₩30,000이 하반기 6개월 동안 더 이상 채무에 남아 있지 않으므로 ₩8,500이다.

$$100,000 \times 10\% - 30,000 \times 10\% \times \frac{6}{12} = 8,500$$

2. 기말 확정급여채무는 ₩98,500이다.

$$100,000 + 20,000 + 8,500 - 30,000 = 98,500$$

3. 사외적립자산의 이자수익은 기초자산 전체 12개월 이자에서 7월 1일 지급분의 하반기 6개월 이자를 빼고, 9월 1일 추가 적립분의 4개월 이자를 더하면 ₩7,500이다.

$$80,000 \times 10\% - 30,000 \times 10\% \times \frac{6}{12} + 30,000 \times 10\% \times \frac{4}{12} = 7,500$$

4. 기말 사외적립자산은 ₩87,500이다.

$$80,000 + 7,500 - 30,000 + 30,000 = 87,500$$

5. 따라서 기말 순확정급여부채는 ₩11,000이다.

$$98,500 - 87,500 = 11,000$$

선지별 해설

① O이다. 기말 확정급여채무가 ₩98,500이고 기말 사외적립자산이 ₩87,500이므로 순확정급여부채는 ₩11,000이다. 따라서 '₩11,000'은 맞는 표현이다.

② X이다. '₩13,000'이 틀렸다. 이 수치는 사외적립자산의 이자수익을 실제보다 작게 잡아 자산을 과소계상할 때 나오는 유형의 값이다. 특히 9월 1일 추가 적립 ₩30,000의 4개월치 이자수익 ₩1,000을 빠뜨리면 자산이 그만큼 줄어 순부채가 ₩11,000보다 커진다. 추가 적립분의 잔여기간 이자를 반드시 가산하면 순확정급여부채는 ₩11,000이다.

③ X이다. '₩15,000'이 틀렸다. 이 수치는 사외적립자산의 이자수익을 더 크게 누락하거나 7월 1일 지급분을 자산에서만 차감하는 식으로 자산을 과소계상할 때 나오는 유형의 값이다. 자산 측 이자수익(₩7,500)을 빠짐없이 반영하면 기말 사외적립자산은 ₩87,500이고 순확정급여부채는 ₩11,000이다.

④ X이다. '₩17,000'이 틀렸다. 이 수치는 이자를 월할로 안분하지 않고 확정급여채무 이자와 사외적립자산 이자를 모두 연 단위로만 잡거나 중간 현금흐름의 잔여기간 효과를 무시해 순부채를 가장 크게 부풀릴 때 나오는 유형의 값이다. 7월 지급분과 9월 추가적립분을 잔여 개월수만큼만 월할로 반영하면 순확정급여부채는 ₩11,000이다.

오답 포인트

퇴직금 ₩30,000의 7월 1일 지급은 확정급여채무와 사외적립자산을 동시에 줄여 순부채를 즉시 바꾸지 않지만, 하반기 이자 계산의 기초금액은 줄인다(채무·자산 각각 6개월치 이자 ₩1,500씩 감소). 9월 1일 추가 적립 ₩30,000은 사외적립자산만 증가시키며 4개월치 이자수익 ₩1,000도 만든다. 이 두 시점의 월할 효과를 누락하면 사외적립자산이 과소계상되어 순확정급여부채를 ₩11,000보다 크게 잡게 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확정급여제도 계산형은 기초 순부채만 바로 굴리지 않고 확정급여채무와 사외적립자산을 따로 계산한 뒤 마지막에 차감하는 구조로 판단한다. 중간 급여지급은 둘 다 감소시키고, 중간 추가 적립은 자산만 증가시키며, 각 현금흐름 이후 남은 기간만큼만 월할 이자를 붙이면 된다.

암기 포인트

확정급여제도는 채무와 자산을 따로 굴리고 마지막에 차감한다. 급여 지급은 둘 다 감소시키고 추가 적립은 자산만 증가시킨다.

NoteBase

문 18. (주)서울의 전부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은 ₩250,000이고,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은 ₩200,000이며, 전부원가계산에 의한 기말제품재고액은 ₩90,000이다. 전부원가계산에 의한 기초제품재고액이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기초제품재고액보다 ₩15,000 많은 경우,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기말제품재고액은? (단, 기초 및 기말 재공품은 없으며, 물량 및 원가흐름은 선입선출법을 가정한다.)

① ₩25,000

② ₩65,000

③ ₩90,000

④ ₩105,000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전부원가계산과 변동원가계산의 영업이익 차이를 재고에 포함된 고정제조간접원가로 연결하여 변동원가계산 기말제품재고액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전부원가계산 영업이익 250,000원, 변동원가계산 영업이익 200,000원, 전부원가계산 기말제품재고 90,000원이다.
구해야 할 값: 변동원가계산 기말제품재고액이다.
주의할 조건: 전부원가계산 재고에는 고정제조간접원가가 포함되지만 변동원가계산 재고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기초재고에서 전부원가계산 금액이 변동원가계산 금액보다 15,000원 많으므로 기초재고에 포함된 고정제조간접원가가 15,000원이라는 뜻이다.

사용할 공식

공식은 전부원가계산 영업이익 - 변동원가계산 영업이익 = 기말재고에 포함된 고정제조간접원가 - 기초재고에 포함된 고정제조간접원가이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두 방법의 차이가 재고에 이연되거나 방출된 고정제조간접원가에서만 발생하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1. 영업이익 차이는 250,000원 - 200,000원 = 50,000원이다.
2. 따라서 기말재고에 포함된 고정제조간접원가 - 기초재고에 포함된 고정제조간접원가 = 50,000원이다.
3. 기초재고에 포함된 고정제조간접원가는 15,000원이므로 기말재고에 포함된 고정제조간접원가는 65,000원이다.
4. 전부원가계산 기말제품재고 90,000원에서 고정제조간접원가 65,000원을 차감하면 변동원가계산 기말제품재고는 25,000원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1번 O: 계산 결과 변동원가계산 기말제품재고는 25,000원이므로 맞다.
2번 X: 65,000원은 변동원가계산 기말제품재고액이 아니라 기말재고에 포함된 고정제조간접원가이다. 올바르게는 변동원가계산 기말제품재고액은 25,000원이다.
3번 X: 90,000원은 변동원가계산 기말제품재고액이 아니라 전부원가계산 기말제품재고액이다. 올바르게는 전부원가계산 기말제품재고 90,000원에서 고정제조간접원가 65,000원을 뺀 25,000원이 변동원가계산 금액이다.
4번 X: 105,000원은 전부원가계산 금액에서 고정제조간접원가를 차감해야 하는데 오히려 다른 값을 더해 생기는 오답이다. 올바르게는 기말 고정제조간접원가 65,000원을 전부원가계산 기말제품재고 90,000원에서 차감한 25,000원이다.

오답 포인트

65,000원을 바로 재고금액으로 착각하거나, 90,000원이 이미 전부원가 기준이라는 점을 놓치면 틀린다. 이 문제의 함정은 영업이익 차이 50,000원이 곧바로 기말재고 차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데 있다. 기초재고의 15,000원 차이까지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전부원가계산과 변동원가계산 비교 문제는 먼저 영업이익 차이를 구하고, 그 차이가 기말 고정제조간접원가와 기초 고정제조간접원가의 차이라는 점을 연결한 뒤, 마지막에 전부원가 재고에서 고정제조간접원가를 제거해 변동원가 재고를 구한다.

암기 포인트

전부원가와 변동원가의 차이는 재고에 포함된 고정제조간접원가 차이이며, 변동원가 재고는 전부원가 재고에서 고정제조간접원가를 뺀 금액이다.

NoteBase

문 19.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의 수익과 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의 수익은 국가의 재정활동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발생하거나,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법령에 따라 납부의무가 발생한 금품의 수납 또는 자발적인 기부금 수령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순자산의 증가를 말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수익은 재원조달의 원천에 따라 자체조달수익, 정부간이전수익, 기타수익으로 구분한다.

③ 국가의 부담금수익, 기부금수익, 무상이전수익은 청구권 등이 확정된 때에 그 확정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④ 국가의 교환수익은 수익창출 활동이 끝나지 않더라도,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수익의 정의, 분류, 인식시점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국가의 교환수익과 비교환수익의 인식기준, 지방자치단체 수익의 분류기준을 정확히 나누는 데 있다.

용어 풀이

교환수익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발생하는 수익이다. 비교환수익은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수익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수익은 재원조달의 원천에 따라 자체조달수익, 정부간이전수익, 기타수익으로 나눈다.

핵심 구분

국가의 수익은 원천에 따라 교환수익과 비교환수익으로 구분한다. 국가의 교환수익은 수익창출 활동이 끝나고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국가의 부담금수익·기부금수익·무상이전수입 등 비교환수익은 청구권 등이 확정된 때 인식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수익 분류는 재원조달 원천 기준으로 자체조달수익, 정부간이전수익, 기타수익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의 수익 정의를 그대로 옮긴 내용이다. 국가는 재화 또는 용역 제공의 대가로 생기는 수익뿐 아니라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수익까지 포함하여 순자산의 증가를 수익으로 본다.
② O: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은 수익을 재원조달의 원천에 따라 자체조달수익, 정부간이전수익, 기타수익으로 분류한다. 분류 기준과 항목이 모두 맞다.
③ O: 국가의 부담금수익, 기부금수익, 무상이전수입은 비교환수익에 해당하고, 청구권 등이 확정된 때 그 확정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인식시점을 정확히 적은 선지이다.
④ X: 국가의 교환수익은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수익창출 활동까지 끝나야 한다. 틀린 표현은 '수익창출 활동이 끝나지 않더라도'이다. 올바른 표현은 '수익창출 활동이 끝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이다.

오답 포인트

④는 교환수익의 인식요건에서 '활동 완료'를 빼고 '금액 측정 가능'만 남긴 함정이다. 수험생이 비교환수익의 청구권 확정 기준과 교환수익의 활동 완료 기준을 섞어 기억하면 이 선지에 흔들리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수익 관련 선지는 먼저 교환수익인지 비교환수익인지부터 나눈다. 교환수익이면 수익창출 활동 완료와 금액의 합리적 측정 가능성을 함께 본다. 비교환수익이면 청구권 등의 확정 시점을 본다. 지방자치단체 수익 분류를 묻는 선지이면 재원조달 원천에 따른 3분류인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국가 교환수익은 '활동 완료 + 금액 측정'이고, 국가 비교환수익은 '청구권 확정'이며, 지방자치단체 일반수익은 '자체조달수익·정부간이전수익·기타수익'이다.

NoteBase

문 20.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상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금융리스는 리스료를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가액과 리스자산의 공정가액 중 높은 금액을 리스자산과 리스부채로 각각 계상하여 감가상각한다.
ㄴ. 사회기반시설 중 유지보수를 통하여 현상이 유지되는 도로, 도시철도, 하천부속시설 등은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ㄷ. 지방채증권은 발행가액으로 평가하되, 발행가액은 지방채증권 발행수수료 및 발행과 관련하여 직접 발생한 비용을 뺀 후의 가액으로 한다.
ㄹ. 재정상태표 보고일 현재 우발손실의 발생이 확실하고 그 손실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 우발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고 그 내용을 주석으로 표시한다.
ㅁ.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해당 자산의 가산항목으로 표시한다.

① ㄱ, ㄴ, ㄹ
② ㄱ, ㄷ, ㅁ
③ ㄴ, ㄷ, ㄹ
④ ㄷ, ㄹ, ㅁ

정답 3번

쟁점

이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상 금융리스의 최초 인식, 사회기반시설의 감가상각 예외, 지방채증권의 평가, 우발손실 처리, 사용수익권 표시방법을 정확히 구별하는 문제이다.

용어 풀이

금융리스는 자산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실질적으로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리스이다.
우발손실은 장래 사건의 결과에 따라 손실 여부가 확정되는 항목이다.
사용수익권은 사회기반시설 자체를 더하는 항목이 아니라 해당 자산에서 차감 표시되는 권리이다.

핵심 구분

금융리스는 리스료의 현재가치와 리스자산의 공정가액 중 낮은 금액으로 계상한다. 사회기반시설 중 유지보수로 현상이 유지되는 도로, 도시철도, 하천부속시설 등은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지방채증권의 발행가액은 발행수수료와 발행 관련 직접비용을 차감한 금액이다. 우발손실은 발생이 확실하고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으면 재무제표에 반영하고 주석으로 표시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가산항목이 아니라 차감항목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1번 X: ㄴ과 ㄹ은 옳지만 ㄱ이 틀려 오답이다. 금융리스는 리스료를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가액과 리스자산의 공정가액 중 높은 금액이 아니라 낮은 금액을 리스자산과 리스부채로 각각 계상한다. 틀린 표현은 "높은 금액"이고, 올바른 표현은 "낮은 금액"이다.
2번 X: ㄷ은 옳지만 ㄱ과 ㅁ이 틀려 오답이다. ㄱ은 금융리스 평가기준을 반대로 적은 문장이다. ㅁ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가산항목으로 본 점이 틀리다. 틀린 표현은 "가산항목"이고, 올바른 표현은 "차감항목"이다.
3번 O: ㄴ, ㄷ, ㄹ이 모두 옳아 정답이다. ㄴ은 유지보수로 현상이 유지되는 도로, 도시철도, 하천부속시설 등이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규칙 내용과 맞다. ㄷ은 지방채증권을 발행가액으로 평가하고 그 발행가액을 발행수수료와 직접비용 차감 후 금액으로 본다는 점에서 옳다. ㄹ은 우발손실의 발생이 확실하고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으면 재무제표에 반영하고 주석으로 표시한다는 점에서 옳다.
4번 X: ㄷ과 ㄹ은 옳지만 ㅁ이 틀려 오답이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해당 자산의 가산항목으로 표시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가산항목"이고, 올바른 표현은 "차감항목"이다.

오답 포인트

이 문제의 함정은 방향어를 바꾸는 데 있다. ㄱ의 "높은 금액"과 ㅁ의 "가산항목"처럼 한 단어만 바꾸어도 정반대 문장이 된다. ㄹ도 주석만 표시하는지, 재무제표 반영까지 하는지를 함께 보아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규칙형 문항은 먼저 비교어와 표시방식을 본다. 금융리스는 높은지 낮은지, 사용수익권은 가산인지 차감인지, 우발손실은 반영인지 주석만인지처럼 원칙 문구를 먼저 대조하면 조합형 선택지를 빠르게 걸러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금융리스는 낮은 금액, 사용수익권은 차감항목, 우발손실은 반영 후 주석으로 정리한다.

NoteBase